

황종우 해수부 장관, 통영시 수산관계자 간담회 개최

- 굴, 멍게, 장어, 멸치 등 경남을 대표하는 품종별 수협 조합장 등과 간담회 열고 현안 청취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25일(목) 경남 통영시에서 경남도청, 통영시청, 수협중앙회, 지역 수협조합장 등 수산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수온 등 자연재해와 생산비 상승,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고수온 등 이상기후로 양식어업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해 대응과 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연근해 수산물 소비촉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과 어선 감척 확대 등 현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경남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51-773-5610)
		담당자	사무관	김 환 (051-773-5392)
			사무관	김지수 (051-773-5622)
			주무관	남정희 (051-773-5621)